

美 테러사건에 대한 유감과 부탁의 말씀

이번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미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를 도와야겠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전쟁양상으로 발전한 테러행위는 21세기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고, 테러리스트는 인류 공동의 적입니다.

테러행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파괴시키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국제적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동 사태에 대한 극단주의자와 이에 대한 강경주의자들의 대응이 에스칼레이션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에 대해 확실한 응징을 하되, 그 응징은 '극단과 강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응징대상세력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응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이끌어 내어 테러리스트의 세력기반과 네트워크를 없애야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북한의 '서울 불바다론'과 우리 측의 '영변 폭격론'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각종 '극단론'과 '강경론'은 이번 테러 사건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하는 것보다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평화와 안정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의 남북간의 화해 협력 정책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에게도 경제적 불안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이고 침착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